

◀ 특집2: 한국음악 20세기(15) ▶

편집자 주: <특집2>는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게재한다. 무엇보다 원고의 방대함 때문이다. 이번호는 III장 2절까지 게재한다.

한국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1)

김 미 육

- I. 들어가면서
- II.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수와 전반적 특징
- III. 작곡가 그룹별 음악 양식적 특징
 - 1. 제1그룹
 - 2. 제2그룹
 - 3. 제3그룹
- IV. 나가면서

I.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실내악의 역사는 -성악을 비롯한 다른 서양음악 장르와 마찬가지로- 개화기인 1890-1920년대에 출생한 초기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시작된다. 창작 실내악곡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

년대이고 최초로 출판된 시기는 남북분단 직후인 1955년이었다.¹⁾ 그러나 1970년대 경부터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실내악이 주목을 받으며 소개되고, 현재는 세계 곳곳으로 그 연주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초기 작곡가들이 남긴 실내악 문헌은 193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폭넓게 걸쳐 있으며 20세기의 다양한 양식적 변화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히 가곡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악곡의 보존 상태도 아직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본고의 목적은 초기 한국작곡가들의 실내악곡이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는데 있다. 그러면 먼저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을 목록화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다음, 실내악곡의 양식적 발전단계에 따라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 작품들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II.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수와 전반적 특징

양악 장르 가운데는 가곡이 오랫동안 거의 유일하게 대중적 관심을 받았던 분야였기 때문에, 기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 그리고 기악 장르 안에서도 친근성 면에서는 피아노음악이 실내악을 앞선다. 다음은 초기 작곡가들의 가곡과 피아노곡 그리고 실내악 작품 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도표이다([]는 분실된 것으로 확실히 밝혀진 것, { }는 미완성곡).

1)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출판한 윤이상의 「현악4중주」와 「피아노3중주」가 그것이다.

<도표 1> 초기 작곡가들의 성악곡 · 피아노곡 · 실내악 작품 수²⁾

작곡가	생몰년도	가곡 수	피아노곡 수	실내악곡 수
1 홍난파	1897-1941	17	/	/
2 안기영	1900-1980	30	/	/
3 박태준	1900-1986	31	/	/
4 현제명	1903-1960	24	/	/
5 김세형	1904-1999	10	1	/
6 안익태	1906-1965	1	/	/
7 이홍렬	1909-1980	51	/	1
8 채동선	1910-1953	12	/	1+[1]+{1} ³⁾
9 김성태	1910년생	41	4	4
10 조두남	1912-1984	14	2	/
11 김동진	1913년생	81	1	/
12 하대웅	1914-1983	31	/	/
13 김연준	1914-2008	1500여곡	/	/
14 김순남	1917-1983	13	3곡 이상; 콘체르토 1	[1]
15 김대현	1917-1985	25	1	/
16 윤이상	1917-1995	6	2	50+[2]
17 정윤주	1918-1997	5	1	6
18 금수현	1919-1992	23	/	/
19 김희조	1920-2001	5	1	/
20 김순애	1920-2006	37 ⁴⁾	4	1
21 김달성	1921-2010	연가곡 2	4	3
22 구두희	1921년생	6	3	1
23 나운영	1922-1994	60여곡	6; 콘체르토 2(+{1})	6
24 이상근	1922-2000	39	10	17
25 조념	1922년생	가곡집	/	/
26 윤용하	1922-1965	12	/	/
27 정희갑	1923년생	11	1	8
28 최인찬	1923년생	가곡집	5	22
29 윤해중	1924년생	31	3	14
30 김진균	1925-1968	37 이상	/	/
31 김규환	1925년생	94	/	/
32 김형주	1925년생	34 이상	/	/

- 2) 작곡가에 따라 출판된 곡의 수가 기준이 된 경우도 있고,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곡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로는 이만방 편, 『한국작곡가 작품총목록』,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그리고 그밖에 인터넷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33	변훈	1926년생	24	/	/
34	박판길	1929년생	16	/	/
35	성두영	1929년생	/	/	1
36	최영섭	1929년생	35	15)	36)

위의 도표를 보면, 창작곡을 남긴 초기 작곡가 36명 중 성악곡은 35명인데 반해 피아노곡을 남긴 작곡가는 그 절반인 18명이고, 실내악은 이보다도 적은 15명인 것을 알 수 있다(현존하는 실내악곡이 없는 김순남은 제외). 뿐만 아니라 기악곡 자체도 상당수가 단순한 구조의 소곡이나 습작에 불과한데, 특히 적은 수의 곡을 남긴 작곡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피아노와 실내악곡 사이에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작품의 분량이 그것이다. 피아노 작품을 5곡 이상 쓴 작곡가는 나운영, 이상근, 그리고 최인찬 세 사람이고 이 가운데 10곡 이상은 이상근 한 명뿐인데, 실내악곡은 전자가 7명이고 후자가 4명으로서 각각 그 비율이 피아노곡의 경우보다 3-4배에 가깝다(3/18[16.66%]:7/15[46.66%], 1:4). 뿐만 아니라 20곡과 50곡 이상도 각각 한 명씩 나타나는데, 후자는 피아노곡을 모두 합한 양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실내악을 남긴 작곡가들은 대체로 작곡가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이상근과 최인찬은 다른 피아노와 실내악 그룹 모두에 속한다). 다음은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곡 목록이다.

-
- 3) 채동선의 미완성 실내악곡은 「현악4중주 No.2」이고,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현악 조곡」이다.
 - 4) 그 밖에도 70여 편이 출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채현경, “김순애의 가곡: 구상에서 추상으로”, 『음악과 문화』 제17호, 66쪽.
 - 5) 최영섭은 이것 외에도 11곡과 16마디 정도의 수많은 습작을 1947-1949년에 걸쳐 스케치 해 놓았다.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고회 기념 최영섭 비망록」, 제1권, 1999, 제1장 참조.
 - 6) 3곡 가운데 2곡은 발표된 바 있으나 모두 출판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 3곡은 최영섭, 257-364쪽에 수록되어 있다.

<도표 2> 초기 작곡가들의 실내악곡 목록

작곡가	목록
이홍렬	▶피아노 3중주 “5월의 노래”(년도 불명)
채동선	▶현악4중주 제1번, 1937
김성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1969), ▶현악4중주를 위한 작은 모음곡(1937), ▶현악4중주를 위한 세 개의 인벤션(1937), ▶현악4중주 in c(단악장, 1938)
김순남	▶[피아노 3중주 “결혼”, 1944]
윤이상	[▶피아노3중주(1953), ▶현악4중주 No.1(1955)]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1959), ▶현악4중주 No.2(1959/61), ▶실내앙상블을 위한 “낙양”(Loyang, 1962),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사”(Gasa, 1963),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Garak, 1963),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노래”(Nore, 1964),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율”(Riul, 1968), ▶플루트·오보에·바이올린·첼로를 위한 “영상”(1968), ▶플루트·오보에·바이올린을 위한 3중주(1972), ▶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 위한 3중주(1972), ▶기타·타악기·목소리를 위한 “가곡”(Gagok, 1972), ▶세성부와 타악기를 위한 “추억”(1974), ▶관악기·타악기를 위한 “조화”(1974), ▶오보에·클라리넷·바순을 위한 “론델”(1975),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2중주(1976), ▶클라리넷·바순·호른·현악5중주를 위한 8중주(1978), ▶오보에·하프·비올라를 위한 소나타(1979),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노벨레테”(1980), ▶소프라노와 실내앙상블을 위한 “밤이여 나뉘어라”(1981),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티나(1983), ▶두 대의 오보에를 위한 인벤션(1984),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1984), ▶클라리넷과 현악4중주를 위한 5중주(1984), ▶관악기·타악기·콘트라베이스를 위한 “무궁동”(1986), ▶클라리넷·하프·첼로를 위한 “재회”(1986), ▶플루트4중주(1986), ▶플루트와 현악4중주를 위한 5중주(1986), ▶현악기를 위한 “용단”(1987), ▶2대의 플루트를 위한 인벤션(1988),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환상적 단편”(1988), ▶첼로와 아코디온을 위한 간주곡(1988), ▶플루트·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 위한 4중주(1988), ▶현악4중주 No.4(1988), ▶2대의 비올라를 위한 “내성”(1988), ▶목관5중주를 위한 “축제무곡”(1988), ▶관악기와 현악5중주를 위한 “거리”(1988), ▶오

	보에와 하프를 위한 “외침”(1989),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투게더”(1990), ▶현악4중주 No.5(1990), ▶목관5중주(1991),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1991), ▶현악4중주 No.6(1992), ▶호른·트럼펫·트롬본·피아노를 위한 4중주(1992), ▶클라리넷·바순·호른을 위한 3중주(1992),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공간 I”(1992), ▶콘트라베이스의 즉흥연주가 겉들여진 8중주(1993), ▶첼로·하프·오보에를 위한 “공간 II”(1993),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동서의 단편 I, II”(1993), ▶두 대의 오보에, 두 대의 첼로, 두 대의 호른, 두 대의 바순을 위한 목관8중주(1994), ▶오보에와 현악3중주를 위한 4중주(1994)
정윤주	▶현악4중주 No.1(1950), ▶현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향로”(1970), ▶아쟁과 피아노를 위한 “북문”(1971),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산수도”(1971), ▶플루트5중주 “화도”(1990), ▶플루트와 가야금을 위한 “석란”(1993), ▶첼로와 가야금을 위한 “배꽃과 벌”(1995),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바다 위의 달빛”(1995), ▶4개의 첼로를 위한 4중주 음시 “봄날”(1996)
김순애	▶현악4중주, 1946
김달성	▶피아노3중주(1958), ▶관현5중주(1961), ▶관·현·타악기를 위한 9중주(1962)
구두회	▶현악4중주 No.1 in F(1967)
나운영	▶String Quartet No.1 “Romantic”(1942), ▶Cello Sonata No.1 “Classic”(1946), ▶Sanjo for Violin & Piano(1955) ⁷ , ▶Piano Trio No.1 Written in the 12 Tone Technique(1955), ▶March “통일”(1956, 수정: 1976), ▶Shinawi for 8 Player(1965, 수정: 1974) ⁸
이상근	▶목관4중주(op.3, 1942),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악장(op.7, 년도 불명),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op.11, 1947), ▶현악4중주 No.1(현악 4중주를 위한 환상조곡, op.17, 1949), ▶피아노3중주 No.1(op.27, 1952), ▶콘체르트 아트레(목관과 현을 위한 3중주, op.28, 1954), ▶안장현의 시에 의한 소프라노와 현을 위한 세 폭의 그림(op.30, 1955), ▶목관4중주(op.31, 1956), ▶팀파니와 현을 위한 콘트라스트(op.33, 1956), ▶소프라노, 플루트, 현악합주를 위한 희유곡(디베르티멘토, op.35, 1959), ▶목관과 현을 위한 희유곡1(op.37, 1959),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자이크 모음곡(op.43, 1963), ▶현악4중주 No.2 “완전5

	도를 위한"(op.55, 1969),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Music"(op.56, 1969),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44321(op.63, 1975), ►목관5중주를 위한 디베르ти멘토 88(op.83, 1988), ►목관악기와 현악합주를 위한 "한국의 꽃"(op.86, 1992), ►두 대의 피아노와 사물을 위한 한국의 춤(op.90, 1994)
정희갑	►현악4중주 No.1(1948), ►두 대의 가얏고를 위한 소품(1963), ►인성과 5개 악기를 위한 시나위 "아라리요"(1974),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치"(1974), ►실내악 "소리-가장행렬"(1976), ►더블베이스와 다섯 주자를 위한 "산책"(1978), ►실내악 "기담"(1981), ►실내악 "살아난 농두 장군"(1992)
최인찬	►현악4중주 No.1(1956), ►첼로 조곡(1956), ►현악4중주 No.2(1958), ►목관4중주(1959), ►소프라노가 있는 6중주 "회색지대의 밤과 소녀"(1959), ►실내관현악을 위한 "Ampros"(7중주, 1959),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1961), ►李太白 시에 의한 삼정경(1971),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아가"(雅歌, 1972), ►7개의 현과 관과 타악기를 위한 음악(1974), ►실내악 "동화"(Die Assimilation, 실내악단, 1975), ►현악4중주 No.3(1975), ►실내악 "확장"(6중주, 1975), ►현악4중주 No.4(1978), ►피아노3중주 No.2(1978),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대금"(1980),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단소"(1980),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악"(1980), ►실내악을 위한 "사랑"(1983), ►현악4중주 No.5(1988), ►15인의 주자를 위한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1992),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애국가를 주제로 한 변주곡"(1995).
윤해중	►현악4중주 No.1(1959),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년도 불명), ►현악4중주 No.2(년도 불명),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세레나데(년도 불명), ►현악4중주 No.3(1978), ►목관5중주 (1980), ►4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음악(1981), ►인성과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비경" (년도 불명), ►플루트, 마림바,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시"(1983), ►2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결체"(結体, 1990), ►바이올린과 클라리넷과 바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4중주 "한과 흥"(1994),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4+2"(1994), ►금관5중주와 텁파니를 위한 "역쟁(力爭)"(년도 불명), ►현악합주를 위한 "향연"(1994)
성두영	►두개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수상"(1988)

최영섭

- ▶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3곡의 민요(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1949), ▶ 우리 민요를 주제로 한 실내악 소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시곡”, 1957/1985, 수정), ▶ 실내악을 위한 민요조곡(7중주, 현악4중주와 플루트, 오보에, 피아노, 1958)

위의 실내악곡 목록을 보면, 매우 다양한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혼합하거나(정윤주의 「아쟁과 피아노를 위한 “북문”」 등) 서양 악기를 통한 전통적 요소의 표현(최인찬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대금”」) 등이 제목 자체에 나타나기도 한다. 윤이상의 52곡은 모두 서양악기를 매체로 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 사실 정윤주, 이상근, 정희갑을 제외한 나머지의 초기 작곡가들이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그리면 이제 작곡가들을 양식적 특징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위의 실내악곡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단, 예외적으로 한 곡만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섯 명의 작곡가들(이홍렬, 채동선[각주3 참조], 김순남, 김순애, 성두영, 구두희)과 세 곡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악보가 그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김달성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채동선의 「현악4중주 제1번」(1937, 자필본으로 현존)은 -현재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김성태의 1937년도 작품 2곡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악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양식적으로는 18세기 서양음악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4악장 구성(g[4/4] - g[6/8] - G[3/4] - G[4/4]), 전고전주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초기 음악을 연상시키는 삼화음적 음들로 이어지는 선율 진행, 주로 기본 음계에 속하는 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호모포니적 짜임새, 고전음악의 전형적 장식음 등이 그것이다.

7) 원래의 제목은 Violin Sonata.

8) 원래의 제목은 Shinawi for Brass, String and Percussion.

III. 작곡가 그룹별 음악 양식적 특징

실내악 작곡가들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성향과 관계없이- 전통음악 양식을 수용하여 민족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단, 세부적으로는 작곡가의 음악관이나 양식에 따라 그 전통이 다소 변형되거나 재해석된다.

다음은 그들을 음악양식에 따라 단계별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첫째 그룹은 한국 근현대음악의 기초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양식을 선보이는데 그친 반면, 둘째 그룹은 장단조성 및 20세기 전반부의 서구기법들을 전통음악에 접목시키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셋째 그룹은 그 이후의 다양한 서구 현대기법까지도 폭넓게 혼용한다.

<도표 3> 초기 실내악 작곡가들의 그룹별 분류와 양식적 특징

그룹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특 징	한국 근현대음악 모색	장단조성 및 20세기 전반부의 서구기법 + 한국 전통음악	20세기 후반부까지의 다양한 서구 현대기법 + 한국 전통음악	
작 곡 가	김성태, 최영섭 (민족 정서의 표현 시도)	정윤주	3-1	윤이상
			3-2	이상근
			3-3	나운영, 정희갑, 최인찬, 윤해중

1. 제1그룹

제1그룹의 실내악은 한국 근현대음악의 기초를 모색하던 시기의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김성태와 최영섭의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성태의 실내악곡으로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1969 작곡, 1971 출판) 만이 혼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⁹⁾ 「현악4중주를 위한 작은 모음곡」(1937)과 「현악4중주를 위한 세 개의 인벤션」(1937)은 -채동선의 것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현악4중주 in c」(단악장, 1938)까지를 포함하는 그의 실내악 네 곡은 모두 제목들이 규모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의 피아노 작품들도 [어린이를 위한] 작은 규모의 곡들이다).¹⁰⁾

그는 한국 근현대 음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 등을 본받아 한국의 ‘신민족주의’ 음악을 추구했는데,¹¹⁾ 그는 이를 위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들의 혼용을 시도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소재가 불분명하지만, 1956년도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을 통해 그 양식적 특징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²⁾ 왜냐하면, 이곡은 5성부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악보 상으로는 실내악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음곡은 서구식의 4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조표와 일치되는 조성 대신 특히 새야음계가 비중 있게 결합되어 있다. 다음은 그 가운데 한 예로 제3악장의 종지부분을 보여 준다.

9) 김성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10) 1930년대의 「피아노를 위한 3개의 2성부 인벤션」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3성부 푸가」(모두 소설), 그리고 1980년대의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모음곡」과 「김메리에 의한 “학교” 주제에 의한 10개의 피아노 변주곡」이 그것이다. 마지막 두 곡은 음악춘추사 편,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창작곡집』, 제1권에 포함되어 있다.

11) 김성태, “한국음악의 방향”, 『대한민국예술원 예술논문집』, 155쪽.

12) 김성태, 『현악합주를 위한 모음곡(Suite for String Orchestra)』.

<악보 1> 김성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제3악장, 마디60-64¹³⁾

위의 악보에서의 음악적 진행은 민속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즉, 조표는 G 장조인 반면 중심음은 D인데, 이끔음인 동시에 D장조를 각인시킬 수 있는 C[#]음이 마디63에서만 나타나는 정도로 장조 조성이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새야음계’를 연상시키는 4도→2도 진행의 3음음계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⁴⁾ 마지막 종지 자체도 D-G-A의 ‘새야화현’¹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앞의 두 마디 역시 4개의 하성부는 ‘새야화현’의 구성음들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앞의 마디들에서도 음들은 거의 모두가 또 다른 ‘새야음계’를 형성한다. 4도→2도 진행 대신 4도 안에 2도가 포함되는 형태가 그것으로서 2도→3도(즉 출발음을 기점으로 이것과 두 번째 음과는 2도, 세

13) 앞의 책, 24쪽.

14) 새야음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민요 “새야새야”的 핵심 음정인 4도와 2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이후 이 음정들을 한국적인 것으로 쓰게 된다. 홍정수, “나운영의 교회음악이 가진 기법적 특징들”, 『음악과 민족』 제10호, 152-179쪽.

15) 편의상 이 음정들이 수평적으로 이어질 때는 ‘새야음계’, 수직적으로 쌓아질 때는 ‘새야화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번체 음과는 4도를 이루는 진행) 또는 3도→2도 진행을 말한다. 박자는 현대적인 5/4 박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통적인 시조의 기본 장단 중의 하나도 5/4이다.¹⁶⁾

이와 같이 아직 전통적 요소의 표현이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새야음계나 새야화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은 당시로부터 13년 후에 작곡되고 이후 유일하게 출판되는 김성태의 실내악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악보 2> 김성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제1악장, 마디102-109¹⁷⁾



위의 악보를 보면, 조표의 표시가 없는 가운데 G와 D가 강조되고 B^b이 등장해 조성이 G단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음은 올림표가 전혀 없어 이끔음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6도음도 마디105에서만 나타나는 가운데 E^b과 E^h가 같이 쓰여 있어 조성이 애매하다. 그리고 이런 진행에서 종지는 새야화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6) 장사훈, 『국악대사전』, 453쪽.

17) 김성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10쪽.

최영섭의 실내악 3곡(「민요를 주제로 한 3중주」[1949] 등)은 모두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1940-50년대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제목이 암시하듯이, 3곡 모두 실제 민요선율을 바탕으로 하거나 편곡한 것으로서, 매우 단순한 호모포니적 짜임새와 함께 역시 새야음계와 새야화현이 두드러져 있다.¹⁸⁾

2. 제2그룹

제2그룹은 장단조성 및 20세기 전반부의 서구기법과 한국 전통음악을 좀 더 조화롭게 결합하는 시도를 했던 작곡가들인데, 실내악 음악은 정윤주로 대표된다. 그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가곡 등과 함께 실내악도 9곡에 이른다. 그의 음악에는 -작곡가도 직접 밝힌 바 있듯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의 영향과 무조적인 뉘앙스 등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요소들이나 악기들과 융합되어 나타난다.¹⁹⁾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상황도 드러내고자 하였다.²⁰⁾

그의 전형적인 음악양식은 1950년대에 정립된 후 이후에도 자신의 것으로 유지되는데, 짤막하기는 해도 1950년도에 작곡된 「현악4중주 제1번」에 이미 매우 선구적으로 제시된다. 이곡의 서구적 특징은 현악4중주 장르, 3악장 구성(3부 - 3부 - 2부 형식), 장단조, 무조적 뉘앙스(제2악장), 다양한 현악기 주법(pizz., arco, double-stop) 등이고, 전통적 특징으로는 민속 장단, 이듬음 역할의 부재나 악화, 새야음계/새야화현 등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제1악장의 경우에는 전통적 요소 쪽이, 제2악장에는 서구적 요소가 더 부각되어 있고, 제3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제1악장의 시작부분이다.

18) 최영섭은 이곡 외에 4개의 민요를 ‘메들리’로 편곡해 놓은 실내악곡도 있다.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고희 기념 최영섭 비망록』, 365쪽 이하.

19) 이영민, “초기 관현악곡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 『한국서양음악학회지』 제14호, 139쪽.

20) 오희숙, “정윤주,” 『음악과 민족』 제26호, 133쪽.

<악보 3> 정윤주, 「현악4중주 제1번」, 제1악장, 마디1-4²¹⁾

I

Moderato $\text{♩} = 72$

위의 악보에는 조표의 표시가 없는데, 조성은 이끔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F단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E[#] 대신 E음이 쓰여 단조 조성의 특성이 약화되어 있다. 한편, 리듬은 흥겨운 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고, 특히 최상 성부와 최하성부를 중심으로 새야화현과 새야음계가 두드러져 있다. 다음은 제2악장의 시작 부분이다.

21) 월간음악 편, 『정윤주, 현악4중주 제1번』, 1쪽.

<악보 4> 정윤주, 「현악4중주 제1번」, 제2악장, 마디1-7

II

Adagio $\text{♩} = 40$

위의 악보에서 최상성부는 반음계적으로 증4도 음정을 내려오는 진행으로 시작된다. 이런 진행은 마디3과 마디4-5에서도 나타나고, 이와 유사한 증4도의 윤곽을 갖는 진행은 다른 성부들에서도 역시 계속 나타난다(예를 들면, 마디3과 7의 베이스). 이 음정은 옥타브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조성 감을 약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인데, 실제로 이 악장은 무조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천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 방식의 무조는 아니고 일정한 진행 동안 특정 음이 중심음 역할을 하다가 다른 음으로 그 역할이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위의 악보에서는 A-E^b-A음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C와 G, B^b 등이 그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B로 종지된다. 박자는 5/4로 되어 있는데, 정운주는 박자의 비대칭성을 한국 타악기 리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시조 장단이기도 하다: 위의 III-1 참조).²²⁾ 위의 악보에서 두드러지는 트레몰로 역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등의 음악에서 이미 널리 나타난 것이지만 동시에 농현의 전형적인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2악장은 제1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성이 더 전면에 드러나 있다.²³⁾

이런 제1악장과 제2악장의 대조적 성격은 제3악장에서 합쳐진다. 새야화현이 마디1부터 등장하고 중심음이 뚜렷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피치카토와 강한 악센트가 붙여져 있는 오스티나토적 리듬 반복(특히 불규칙하게 악센트가 붙여져 있는 마디18-24) 등이 부분적으로 바르톡과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종지는 3회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다음호에 계속)

22) 이영민, “초기 관현악곡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 139쪽.

23) 예를 들면, 드뷔시의 “바다”(La mer, 1905) 등이 그것이다.